

국회 문체위, '순천 애니 클러스터' 감사요구안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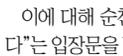
조계원 “특혜 의혹 재발 않도록 일벌백계”
순천시 “질 낮은 정치공세 당당히 임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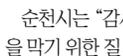
대해 전방위적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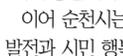
조계원 의원은 “감사원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예산 증액 과정의 불투명성,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 뿐만 아니라, 노 시장과 김건희 측근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뒷거래 등에 철저한 현미경 감사를 실시해 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즉각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순천시는 “감사 요구는 여수MBC 순천 이전을 막기 위한 질 낮은 정치 공세이고, 순천시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의지인 간섭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명백하고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시장과 공직자들은 순천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한 죄박에 없다”며 “시민들과 함께 순천 발전을 꾀방 놓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위법 부당한 일이 없기에 감사원 감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7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노관구 순천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에 따르면 이번 감사요구안 의결은 2025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노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확인한 각종 특혜와 위법·부당 의혹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감사요구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식 이송되며,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J건설 사업 특혜 제공 여부, 읍성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국가정원습지센터 내 여수MBC 스튜디오 조성 사업,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발주과정, 한반도 평화정원 조성 및 철거 과정의 예산 낭비 문제 등에

/김진수기자



윤석열 대통령, 제주 4·3 평화공원 분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위령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민형배, ‘대통령 팔이’ 정치 중단해야”

“대통령 뜻 모른 채 정치적 도구 활용”
“입장 반복 지속…심각한 무책임 수준”



통합과 관련해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통합을 바라는 대통령의 뜻을 반대하다가 이를 만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그럼에도 민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빛명캠프’는 29일 성명서를 내 “민형배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빛명캠프는 “민 후보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심각한 정치적 무책임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을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끌어오면서도 정작 자신은 대통령의 뜻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빛명캠프는 “민 후보는 광주·전남 행정

또한 빛명캠프는 “전남 의대 설립 문제도 토론 과정에서 의대 정원 50명 각각 배정, 대학 병원 2개에 대해 대통령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놓고, 다음 날 주철현 후보의 전남 의대 50명 분할, 대학병원 2개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빛명캠프는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검찰 보

원수사권에 대해 주철현 후보가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민 후보는) ‘좀 다르죠’라고 답했다”며 “이에 대해 지난 27일 토론회에서 제자 묻자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빛명캠프는 “정치인의 말은 곧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8년 전 사진까지 꺼내 들며 대통령과의 친분을 부각하려는 행보는 안쓰럽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빛명캠프는 “사진을 이용하는 걸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진을 대통령 시절의 사진인 것처럼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철학도, 책임도 없는 ‘대통령 팔이 정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본은진기자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봇물

택시노조·사회적경제연합회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광주지역 택시노동조합, 전직 남구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일동, 남구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3개 단체가 김 예비후보 지지를 발표했다. <사진>

이들 단체는 한목소리로 김 예비후보의 검증된 실천력과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온 분들의 소중한 지지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택시 노동자의 팍팍을, 사회적 경제인들의 따뜻한 마음, 주민자치 위원들의 열정을 받들어 중단 없는 남구 발전과 더 큰 남구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9일에도 남구 출신 전현직 사·구의회의장 및 의원 4명과 민선 7·8기 남구 퇴직 공직자들, 효천지구(SRF 시설) 악취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남구 청년리더들(깨시미) 단체들도 김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김재정기자

소영호 ‘장성군민이 만드는 공약’ 눈길

접수 시작…‘참여형 공약’ 혁신 선언



한 결정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주시익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중심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군민이 만드는 공약’ 접수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소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지 않고 그 시간과 비용을 군민에게 돌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약 참여 캠페인은 이리

그는 “지금까지의 공약은 후보가 만들고 군민은 선택만 하는 구조였다”며 “이제는 군민이 직접 제안하고 함께 완성하

는 공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예비후보는 “군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군민”이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장성의 미래를 바꿀 정책 아이디어까지 폭넓게 수렴해 장성에 꼭 맞는 실행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 예비후보는 “작은 제안 하나가 장성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소영호와 함께 만드는 진짜 군민주권 시대를 열어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장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